

전북TP,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

국내 최초의 신·재생 에너지 실증연구 단지인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기관으로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선정됐다.

전라북도도는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으로 전북테크노파크를 선정하고 3월9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위탁기간은 2011년 4월부터 3년간이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신·재생에너지단지를 동북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주도형 국제 실증인증단지 육성, 산업화 실무체험형 인력양성, 산업단지 입주기업 조기 정착, 참여 연구기관을 연계한 R&D, 신규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백련리 일대 35만6000m² 부지에 1194억원을 들여 신·재생 에너지 실증연구단지, 테마체험단지, 산업단지 등이 개발되며 본격 가동되는 2011년하 반기부터 6000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연간 5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저널 2011/03/10>